

## 백석 문학 연구

1959~1962년 삼수시절을 중심으로\*

김재용(원광대학교)

번역 일만 하던 백석이 전후에 오로지 아동문학만을 창작하다가 1959년 삼수군으로 내려간 후부터 시 창작을 재개하였다. 1959년부터 1962년까지 백석은 시와 아동문학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왕성한 창작의 성과를 냈다. 1963년 이후 1996년 작고하기까지는 전혀 발표된 작품이 없기 때문에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삼수에서 창작했던 작품들은 백석의 문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 삼수 시절 백석의 작품은 두 가지의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자신의 내적 지향에 의해 나온 것으로 일제하 그의 작품경향의 연장선 위에 놓인 작품들이다. 당시 삼수 지역은 농촌의 협동조합이 완료된 상태라 백석은 이러한 사회적 변동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제시대 이후 그가 추구해온 근대극복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열망을 농촌의 협동화 속에서 읽었기에 많은 작품들을 진지하게 창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삼수 시절의 백석은 당과 작가동맹의 정책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작품들도 생산하였다. 이전의 백석의 작품과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작품들이 나온 것은 아마도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백석은 삼수에 내려온 후 몇 년간의 창작적 실적을 쌓고 나면, 여타의 작가들이 그러했듯이, 다시 평양으

\* 이 논문은 2009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작가동맹이 요구하는 작품들을 창작하는 타협을 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이 시기에 나온 일련의 경직된 외삽된 작품이다.

내발적인 것과 외삽적인 것의 혼재로 점철되었던 삼수 시절의 백석의 문학은 이 시기 백석이 처했던 곤혹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삼수, 내발성, 외삽성, 집단농장, 아동문학

## 1. 삼수 시절의 백석과 두 경향의 작품

재북 작가인 백석의 문학은 해방 이후 북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백석 문학의 연구는 주로 일제하 문학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었다. 남한 사회에 널리 퍼진 냉전의식이 한몫을 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백석 문학이 적은 양이 아니고 또한 그 작품들의 질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한 연구 없이는 온전한 백석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에서 창작된 동화시와 동시들이 남한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관심이 일제하의 작품에 못지않게 집중됨으로써 북한에서 백석이 창작한 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해졌다. 백석의 생애 전체에 걸쳐 창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이 신뢰를 줄 것이다.

냉전의식에서 벗어나 백석의 문학을 연구하려고 하여도 어려움은 여전하다. 해방이후 북에서의 자료와 주변 정황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된 연구를 내놓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1957년에 나온

동화시집 『집게네 네 형제』가 발굴되어 소개됨으로써 북에서의 백석 문학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1959년 1월 이후 백석이 삼수에 내려가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아주 적은 대목만 알려졌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다행히 최근에 북에서 간행된 『아동문학』 잡지가 남쪽에 소개되면서 이 시기의 공백을 메울 수 있어 꽤 다행이다.<sup>1)</sup>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백석은 1945년 이후 평양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1959년 1월에 양강도 삼수군 관평리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처음에 내려갈 때 백석은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북의 작가들이 흔히 경험하듯이, 현지생활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창작의 성과를 인정받게 되면 다시 중앙인 평양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백석은 내려간 이후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1996년 1월 85세의 나이로 생을 마칠 때까지 무려 37년을 삼수에서 보냈다. 삼수가 자신의 제2의 고향이 된 셈이다.

해방 이후 백석의 활동은 평양시절과 삼수시절로 구분할 수 있다. 평양시절은 해방이후 만주에서 들어와 평양에서 거주하면서 창작과 번역을 하던 시기를 말한다. 삼수시절은 1959년 이후 삼수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작품을 창작한 시기를 말한다. 1962년 말 이후 공개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삼수시절이란 1959년부터 1962년까지를 일컫는다. 물론 1996년 1월 작고할 때까지 삼수군에서 줄곧 생활했던 것을 고려하면 삼수시절은 1959년부터 1996<sup>2)</sup>

---

1) 최근 북한에서의 백석문학의 창작 면모를 알 수 있는 전집의 개정증보판이 출판되어 한층 자료 접근이 쉬워졌다. 김재용 편, 『백석전집(개정증보판)』(실천문학사, 2011)을 참고.

년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63년 이후 창작은 알려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삼수 시절 하면 1959년부터 1962년까지를 지칭한다. 삼수 시절의 창작이 평양 시절에 비하여 양적으로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작품 경향 또한 내발적인 것과 외삽적인 것의 혼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층 문제적이다. 그런 점에서 삼수 시절의 백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1959년에 삼수에 내려간 후 백석은 전에 없이 활발한 문학활동을 하였다. 그 동안 거의 쓰지 못 하였던 시를 여러 편 작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문학』에 발표하는가 하면 전후에 줄곧 창작하였던 아동문학을 이 시기에도 활발하게 창작하여 1961년에는 동시집 『우리 목장』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적으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였다. 백석이 이 시기에 급작스럽게 많은 창작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아동문학만 창작하던 그가 이 시기에 이르러 아동문학은 물론이고 시를 많이 발표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삼수 시절 백석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의 다른 경향의 혼재이다. 외삽적인 것과 내발적인 것이 섞여 있다. 외삽적이란 말은 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응하여 창작된 것을 말한다. 외삽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 내발적이다. 내발적이라 함은 설령 당과 국가의 정책에 결과적으로 부합된다 하더라도 창작동기가 정책적 요구에 응한 형태의 것이 아님을 말한다. 북한 작가 홍석중의 경우 2002년에 발간한 장편소설 『황진이』가 내발적인 것에 해당된다면, 2005년에 발간한 『폭풍은 큰 돛을 펼친다』는 외삽적인 것에 해당한다. 후자의 작품은

---

2) 백석은 향간에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1996년 1월에 사망하였다.

63명의 비전향장기수의 삶을 소설화해야 한다는 당의 지침을 받고 시작한 소설이기 때문에 외삽적이라 할 수 있고, 전자의 작품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북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다룬 것이라 당과 국가로부터의 그 어떤 지침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작가 내의 상반된 경향의 공존은 북한 작가들에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외삽적인 것과 내발적인 것의 두 개의 다른 경향의 작품이 삼수 시절 백석 문학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적 자아의 분열이라 할 수 있다. 백석 문학의 보여주는 이 언어의 분열상을 해명하는 것은 백석문학의 전면적 이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 2. 아동문학에서의 분열

삼수 시절 백석의 문학활동 중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아동문학 창작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백석은 전후 시기에 아동문학 창작에 힘을 들였고 아주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삼수 시절에 그가 아동문학 창작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백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동문학 창작에 열정을 바친 것으로 보인다.

삼수에 내려가서 작가동맹 아동문학 분과 기관지인 『아동문학』 1960년 5월호에 발표한 세 편의 동시가 처음이다. 세 편의 시 “오리들이 운다”, “송아지들은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 “앞산 꿩 뒷산 꿩”은 국영농장에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쓴 동시들로 이 시기 그의 지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오리들이 운다”의 전문이다.

한 종일 개울가에  
엄지오리들이 짹짹  
새끼오리들이 짹짹

오늘도 동무들이 많이 왔다고 짹짹  
동무들이 모두 낮이 설다고 짹짹

오늘은 조합 목장에 먼 곳에서  
크고 작은 낫선 오리 많이들 왔다.  
온 몸이 하이얀 북경종 오리도  
머리가 새파란 청둥 오리도

개울가에 짹짹 오리들이 운다  
새 조합원 많이 와서 좋다고 운다

조합의 축산반에서 기르고 있는 오리들이 노는 것을 재치 있게 그리고 있는 이 동시는 이전부터 백석이 보여주고 있던 동시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강조하면서도 오리들의 생태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태도가 백석 자신이 강조하던 아동문학의 접근법이였다. 새로운 종류의 오리들이 들어와 다른 종류의 것들과 공존하면서 서로 노는 것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읽는 것은 백석이 항상 갖고 있었던 태도이다.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질적인 것의 공존 문제는 일제하 시 “모닥불”을 연상시킨다. 서로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이 아무런 위계 없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모닥불”이다. 이러한 태도와 상상력을 “오리들이 운다”에서도 어렵

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으로 하여 백석이 삼수에 이르러 새로운 세계를 엿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존 세계의 연장 속에서 읽어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백석이 삼수에 내려가던 시절은 농촌의 협동조합이 이미 완결된 시기임을 고려하면 농촌 공동체에 대한 백석의 이러한 태도는 일제하의 그의 시적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배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석은 농촌의 협동조합을 보면서 당시 국가가 지향한 것과는 다른 것을 상상하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읽어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 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것은 직접적 계몽성이다. 당시 북의 사회에서는 농업협동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위로부터의 동원이 작용하였다. 작가들은 이러한 농업협동화를 작품에 직접적으로 그려낼 것을 주문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석이 이 작품에서 “새 조합원이 많이 와서 좋다고 운다”고 한 마지막 행은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전후 이동문학 논쟁에서 받았던 비판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이들로부터의 비판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는 데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동문학 논쟁에서 받은 비판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이다.<sup>3)</sup>

---

3) 이러한 양상은 이동문학 같은 호에 실린 다른 두 편의 동시 “송아지들은 이렇게 잡니다”와 “앞산 팽, 뒷산 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송아지들은 이렇게 잡니다”는 힘이 약한 송아지들이기는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승냥이나 범도 무섭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송아지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하여 힘이 센 억압자에 맞서 싸우는 힘없는 자들의 단결이 갖는 도덕적 우위를 그리고 있다. 백석의 시가 지향하고 있는 여린 것들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어 역시 시인의 체취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도 강한 계몽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행 “송아지들은 어려서부터 원수에

아동문학 논쟁에서 백석은 아동에 대한 교양은 계몽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논자들은 상상성이 없는 것은 아동문학으로서 결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에 썼던 백석의 작품들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행에 계몽성이 드러나는 형태의 작품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 아동문학 창작에서 보이고 있는 계몽성은 분명 이전에 그가 겪었던 비판을 일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이에 입각하여 넓은 의미의 교양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아동 문학 창작방법이었다. 이러한 시적 경향은 당의 정책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쓰인 것으로 보이는 시들에서조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1962년에 발간된 동시집 『새날의 노래』에 수록된 동시 “강철장수”는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의 일부이다.

석탄도 장수. 알곡도 장수  
 철도 물고기도 집들도 장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 센 장수  
 그는 강철 장수란다

#### 강철 장수 앞장서서 나아간다

『새날의 노래』에서 당시 미국에 대한 북의 경계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앞산 꿩 뒷산 꿩”은 앞의 두 시보다는 백석의 체취가 덜 느껴지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행을 빼고는 역시 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관찰에 기반을 두고 쓰인 동시이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창작된 것으로 백석 자신의 아동문학 창작방법론에 기반을 둔 작품이다. 하지만 역시 마지막 행 “꿩들도 조합 꿩이 되고 싶어 울지”에서 계몽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앞의 두 시들과 궤를 같이 한다.

다섯 장수들이 뒤를 따른다

강철 장수 다섯 장수들을 도와 준다

있는 제 힘 제대로들 다 쓰라고

뜨락또르 되어 알곡 장수를

쇠기둥이 되어 집 장수를

기관선이 되어 물고기 장수를

직포기다 되어 천 장수를

당시 북에서 강철 생산을 독려하면서 중공업 중시정책을 펼쳤던 것을 고려하면 이 동시는 분명 당의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또한 근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자신의 시적 생명으로 하던 백석이 이처럼 중공업화를 무반성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다소 걸린다.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 동시 역시 앞서 보았던 “오리들이 운다”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식민지화로 인하여 공업화에 실패한 비서구 식민지의 나라에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면서도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백석으로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당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면 이를 내면화해서 시창작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 역시 외삽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문제는 이 시기에 그가 창작한 동시 중에서 이러한 것들과는 같이 놓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전혀 다른 경향의 작품 즉 외삽적이라고 짐작되는 작품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루터”이다. 이 시의 전문이다.

이 이른 아침 날 / 이 강기슭에서  
살랑 바람에 붉은 넥타이 날리며 / 나무 심고 꽃 가꾸는 아이들아  
돌 옮기고 길 닦는 아이들아 / 너희들은 시방  
정성들여 공원을 꾸려 가누나 / 아이들아 너희들의 빨간 불들엔  
웃음이 그냥그냥 피어나고 / 너희들의 입에선 멋지 않고  
맑고 고운 노래 흘러나오누나 / 너희들의 재깍대는 말소리  
그리도 기쁨에 차 밝고 / 너희들의 발걸음  
그리도 흥에 겨워 가볍구나

아이들아 너희들 어서 / 그 밝은 말들로 실컷 떠들며  
그 맑은 노래 실컷 부르며 / 마치도 아침 날의 이슬방울들 같이  
그리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성들도 / 이 강기슭을 함뱍 적시어라.

참으로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 웃고 떠들고 기뻐 노래 부르게 하시려  
한 사십 년 먼 지난날에 / 너희들과 같은 나이의 원수님이  
여기서 강을 건너가시었다. / 나이 어리신 원수님은  
여기서 강을 건너가시었다. / 굼어서 눈이 꽤운 늙은이들과  
배고파 우는 어린아이들과 / 누더기 보따리며  
바가지짜들을 들은 어른들과 같이 / 우리나라 불쌍한 동포와 같이.

원수님은 어리서나 아시었다. / 이들에게서 정든 고향을 빼앗고  
이들을 제 나라에서 쫓아내는 / 그 악독한 원수들이 누구들임을  
이 때 원수님은 원수들에 대한 증오로  
그 작으나 센 주먹 굳게 쥐어지시고

그 온 핏대 높게 뜨겁게 뛰놀며 / 그 가슴 속에 터지듯 불끈  
맹세 하나 솟아올랐단다 / “빼앗긴 내 나라 다시 찾기 전에는  
내 이 강을 다시 건너지 않으리라”

어리신 원수님은 바람 찬 남의 나라 땅에서  
밤 새워 읽고 쓰고 공부하실 때에도  
산에서 강에서 동무들을 지도하실 때에도  
그리고 총 들고 원썬들과 싸우실 때에도  
이 맹세 낮이나 밤이나  
가슴 속 깊이 깊이 안고 계시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 천 번 만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어리신 원수님의 이 큰 맹세 이루어져서  
오늘 너희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있음을  
마음대로 공부할 학교들이 있음을  
그리고 학자라도 기사로도 작가로도 될  
넓고 빛나는 장래가 있음을

그러나 아이들이 잊지 말자 / 자다가 꿈속에서도 잊지 말자  
이 크나큰 맹세 이루어지려 / 우리의 원수님은 오래고 오랜 세월  
더할 수 없는 고난 다 겪으시었음을  
그리고 원수님의 고난이 그리도 컸음으로 하여  
너희들의 행복이 그리도 귀한 것임을

이 이른 아침 날 / 이 강기슭에

아이들이 너희들은 기쁨에 차 / 나무 심고 꽃 가꾸고  
돌 옮기고 길 닦누나 / 너희들의 아버지 원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영광 돌리려 / 그 어린 가슴 속 맹세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천 년 만 년 두고두고 / 너희들의 뒤로 또 그 뒤로 또 그 뒤로  
이 나라에 태어날 많고 많은 아이들의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아이들의 / 맨맨 앞에서 그리고 맨 먼저  
어리신 원수님의 크나큰 맹세를 자랑하고자<sup>4)</sup>

1959년부터 북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일제에 맞선 유일한 혁명전통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항일운동이 일제하의 많은 저항운동들 중의 중요한 하나로 규정되었던 지난 시절의 역사서술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오로지 김일성 중심의 항일운동만을 유일한 혁명전통으로 삼았다. 이러한 역사서술이 전 역사서술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제4기 15차 전원회의 이후의 일이지만 이를 선도하는 역사서술적 움직임은 1959년 이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1959년부터 1967년까지의 시기에는 김일성 중심의 역사서술이 일원적으로 지배하지는 못 하였다. 바로 이런 무렵에 백석이 이러한 동시를 썼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임에 틀림없다. 백석이 그 동안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몰랐다가 이 무렵에 이르러 알게 되면서 시로 옮겨야 할 절실함을 깨달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외부로부터의 요구와 과제에 순응한 것으로 보인다.

---

4) 백석, “나루터,” 『아동문학』, 10호(1962).

이처럼 삼수 시절 백석의 동시들은 한편으로는 전변되고 있는 농촌의 협동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단초를 확인하면서 이 발견을 시적으로 옮긴 내발적인 시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전통으로서의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시로 형상화는 외부의 정책적 과제를 수행한 다분히 외삽적인 시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매우 다른 경향의 두 흐름이 같은 시기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동시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기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3. 시적 경향의 분열

백석의 삼수 시절이 그 이전과 달라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창작을 재개하였다는 점이다. 백석은 해방 이후 삼수에 내려가기 전까지 동시들을 많이 창작하였고 번역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시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물론 발표는 하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발표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9년 1월 삼수에 내려간 이후 갑자기 많은 시들을 발표한다. 그런데 이 시들에서도 아동문학에서 볼 수 있었던 시적 자아의 분열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공동식당”은 동시 “오리들이 운다”와 같은 계열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 시는 농촌의 협동화 과정에서 나온 공동식당을 배경으로 공동체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백석이 농업협동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헤아릴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협동화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단초를 발견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따라서 이 시에서도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공동식당에서의 유쾌함과 연대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위계도 찾아볼 수 없다.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와 여자들 사이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일제하의 시 “여우난골죽”을 연상시킨다. 앞서 동시 “오리들이 운다”가 “모닥불”의 연장선에 있는 것과 호응한다.

아이들 명절날처럼 좋아한다  
뜨락이 들썩 술래잡기 숨박꼭질  
퇴 위에 재깅대는 소리 깨득거리는 소리

어른들 잔칫날처럼 흥성거린다  
정주문 큰방문 연송 여단으며 들고 나고  
정주에, 큰방에 웃음이 터진다

먹고 사는 시름 없이 행복하여  
그 마음들 이대도록 평안하구나  
새로운 동지의 사랑에 취하였으매  
그 마음들 이대도록 즐거웁구나

아이들 바구니, 바구니 캐는 달래  
다 같이 한부엌으로 들여오고  
아낙네들 아끼여 갓 혈은 김치

이쉬움 모르고 한식상에 올려놓는다

왕가마들에 밥을 짓고 국은 끓여  
하루 일 끝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그 냄새 참으로 구수하고 은근하고 한없이 깊구나  
성실한 근로의 자랑 속에 ……

밭 갈던 아바이 감자 심던 어버이  
최뚝에 송아지와 놀던 어린 것들  
그리고 탁아소에서 돌아온 갓난것들도  
둘레둘레 둘러놓인 공동 식탁 위에  
한없이 아름다운 공산주의의 노을이 비낀다<sup>5)</sup>

이 시는 전적으로 내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석이 삼수에 내려와서 목격한 농업협동화의 과정은 그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을 것이다. 평양에서도 그는 이미 이 농업협동화에 대해서는 술하게 듣고 살았지만 이렇게 피부로 직접 느끼기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평양에서 이 농업협동화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 막연한 사회적 변동의 과정의 한 단락으로만 인식했지 삶의 기본적인 감정구조를 바꾸어 놓는 정도로까지 인식하지는 못 하였을 것이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선전 자료를 통하여 들은 것을 매개로 이 농촌현실을 보는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회적 변동의 내부를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협동화의 농촌이 그 선전의 기획과는

---

5) 백석, “공동식당,” 『조선문학』, 6호(1959).

무관하게 분명히 중요한 일상적 삶의 전환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협동화의 농촌을 다룬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분명 내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도 아동문학논쟁의 흔적을 확연하게 읽을 수 있다. 마지막 행인 “한없이 아름다운 공산주의의 노을이 비긴다”는 구절은 이 시에서 빼버려도 큰 상관이 없다. 마치 “오리들이 운다”에서 마지막 행 “새 조합원 많이 와서 좋다고 운다”를 빼도 전체 시에 큰 지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마지막 행에서 강한 계몽성을 덧붙이는 것은 사상성의 약화를 비판받아 삼수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우회적 방식을 택함으로써 비판의 예봉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적 흐름은 비교적 당시의 정책적 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 “돌아온 사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의 한 대목이다.

이제는 차창에 기대어 잠들었구나  
그 기억 속 설레어 잘 줄 모르던  
출항의 동라 소리도 동해의 푸른 물결도  
조국 산천을 가리우던 눈시울의 이슬도  
그러나 잠 못 들리라  
조국에 대한 사무치던 사모는  
심장에 꿰어 넘치던 민족의 피는  
이 한 밤이 다 가도  
천만 밤이 가고 또 가도  
아니 잠 속에서도 사무치리라 꿰으리라  
눈 감아 이미 숨소리 높은 사람아

조국의 꿈은 구원이구나 자유구나  
행복이구나 삶이구나  
이 꿈을 위해서는 좋으리라  
열 동해를 모진 바람 속에 건너도<sup>6)</sup>

이 작품은 당시 일본에서 북으로 돌아오는 조총련 계통의 귀국자들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청진의 항구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차중에서 즐고 있는 귀국자를 포착하여 쓴 이 작품은 당시 북의 당 정책에 기본적으로 닿아 있기는 하지만 외삽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제하에서부터 항상 민족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던 그것기에 이러한 시적 태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역시 일본에서 유학을 한 바 있기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소수자로서 겪고 있는 고달픈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시는 매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에서는 과거 백석의 흔적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외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시적 경향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작품들을 이 시기에 쓰고 있는데 문학신문 1962년 4월 10일에 실린 시 “조국의 바다여”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물결이 온다 / 흥분에 떠는 흰 물결이 / 기슭에 찰석궁 물을 던진다

울릉도 먼 섬에서 오누란다 / 섬에선 사람들 굶어 죽는단다

---

6) 백석, “돌아온 사람,” 『조선문학』, 12호(1961).

섬에는 배도 다 깨어졌단다

물결이 온다 / 격분으로 숨가쁜 푸른 물결이 / 기슭을 외락 그러안는다

인천 군산 항구에서 오누란다

항구엔 끊임없이 원쑤들이 들어 온단다

항구에선 거래들이 팔려 간단다

밤이고 낮이고 물결이 온다 / 조국의 남녘 바다 원한에 찬 물결이

그리워 그리운 북으로 온다

밤이고 낮이고 물결이 간다 / 조국의 북녘 바다 거센 물결이

그리워 그리운 남으로 간다 / 울릉도로 간다 인천으로 간다

주리고 떠는 거래들에겐 / 일어나라고 싸우라고

고무와 격려로 소리치며

백대의 피맺힌 원쑤들에겐 / 몰아낸다고 삼켜 버린다고

증오와 저주로 번쩍이며

해가 떠서도 해가 저서도 / 남쪽 북쪽 조국의 하늘을

가고 오고 오고 가는 심정들 같이 / 남쪽 북쪽 조국의 바다를

오고 가고 가고 오는 물결들

이 나라 그 어느 물굽에서도 / 또 어느 기슭에서도

썩 오누라고 치는 소리 속에 / 썩 가누라고 치는 소리 속에

물결들아 / 서로 껴안으라 우리 그렇게 껴안으리라

서로 붙을 비비라 우리 그렇게 붙을 비비리라

서로 굳게 손을 쥐라 우리 그렇게 손을 쥐리라

서로 어깨 결으라 우리 그렇게 어깨 결으리라

이 나라 남쪽 북쪽 한피 다투는 겨레의

하나로 뭉친 절절한 마음들 물결 되어 뛰노는

동쪽 바다 서쪽 바다 또 남쪽 바다여

칼로도 총으로도 또 감옥으로도 / 갈라서 떼어내진 못할 바다여

더러운 원수들이 / 오직 하나 구원 없는 회한 속에서

처참한 멸망을 호곡하도록 / 너희들 노호하라 온 땅을 뒤덮을 듯

너희들 높이 솟아라 하늘을 무너칠 듯

그리하여 그 어느 하루 낮도 하루 밤도

바다여 잠잠하지 말라 잠자지 말라 / 세기의 죄악의 마귀인 미제

간악과 잔인의 상징인 일제 / 박정희 군사 파쇼 불한당들을

그 거센 물결로 천 리 밖 만 리 밖에 차던지라

이 작품은 많은 설명 없이도 기존의 백석 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로부터 과제가 주어져서 창작된 것이라는 점은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내발적인 요소가 지배적이었던 앞의 두 작품 “공동식당”과 “돌아온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거리가 먼 것이다. 이 작품은 분명 외부로부터 기획된 것이고 이를 백석으

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외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이 작품이 실린 문학신문의 구성이다. 이 시는 문학신문 1962년 4월 10일자 4면에 실렸는데 같은 면에 흥미로운 글이 세 편 더 실려 있다. 하나는 정론 “판가리 할 때는 왔다”이고 다른 하나는 수필 “4월이 왔다 항쟁의 북을 울리라”이며 마지막으로 기사 “부산 시내 초등학교들의 한심한 교실 형편”이다. 정론 “판가리할 때는 왔다”는 무기명인 것으로 보아 문학신문 편집자가 문학신문의 공식적 입장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미국과 박정희를 비판하면서 봉기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수필 “4월이 왔다. 항쟁의 북을 울리라”는 해방 직후 김수영 등과 함께 동인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시인 임호권이 서울에 살고 있는 작가에게 주는 형식으로 쓴 것으로 마찬가지로 미국과 박정희정부를 비판하면서 봉기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사 “부산 시내 초등학교들의 한심한 교실 형편” 역시 남한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글 가운데 백석의 시 “조국의 바다여”가 배치되어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이 시는 분명히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학신문이 이 날짜의 면을 이렇게 구성하고 백석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주문한 것이며 백석은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일정하게 타협하여 썼던 것으로 보인다.

#### 4. 내발적인 것과 외삽적인 것의 혼재

삼수 시절 백석의 이동문학과 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발적인 것과 외삽적인 것의 혼재이다. 해방 이후 평양에서 창작활동을 하던 1945년부터 1958년까지 시기의 백석의 창작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문학적 경향의 혼재와 같은 것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평양 시절의 그의 문학에서는 그가 원하는 다시 말하면 내발적인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가 시를 창작하지 않았던 것도 내발적인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삼수에 내려간 이후 그의 문학에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고 있을까?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과거 일제하의 백석의 시를 연상시키는 듯한 작품들이 이 시기에 많이 발표된 것은 삼수라는 공간이 주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수의 협동농장에서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농촌 공동체의 새로운 복원이었을 것이다. 백석은 근대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근대는 그 해방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소외를 유발시켰다. 인간의 근원적 상실과 같은 그러한 소외가 아니고 개개인을 공동체로부터 유리시켜 외로운 단독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백석은 이러한 소외를 처절하게 그려내면서 민속적 상상력을 통해 잃어버린 공동체를 새롭게 환기시켰다. 농촌이 근대에 편입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동체의 급속한 해체이다. 일제하의 식민지 근대의 과정 속에서 백석은 이를 누구보다도 깊이 보았고 이를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의 끝자락에서 그 잔재를 붙잡아 이를 통해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모닥불”이나 “여우난골죽” 등의 시들은 바로 이러한 백석의 시적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런 그가 삼수에서 발견한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농촌 공동체의 현상이었다. 당시 북의 국가가 기획 선전한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가능성을 읽었던 것이다. 이 점으로 하여 그는 많은 내발적인 작품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내부적 동력이 없다면 이 시기에 그가 이렇게 많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창작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당의 정책을 문학으로 옮겨야 하는 과업을 외부로부터 받고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도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백석이 현지 체험을 하러 나갔을 때 이것은 일시적인 체류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당시 한설야를 비롯한 작가동맹의 지도부들이 백석을 비롯한 몇몇 작가들을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들 작가들에 대한 문단 안팎의 비판을 수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작가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작가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은 더욱 더 큰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내려가서 당의 정책을 받들어 열심히 창작을 하여 그 성과를 보이면 다시 평양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백석이 내려 간 후 곧 작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문학』과 『아동문학』이 백석에게 작품을 청탁하고 이를 게재했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현지로 내려간 작가를 끌어올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동맹중앙에서는 청탁을 하였고 백석은 이들의 배려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작품을 창작하여 올려 보냈을 것이다. 그가 1961년에 동시집 『우리 목장』을 출판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중앙에서 당의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품을 요구하였을 때 백석은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었기에 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의 결과물이 바로 내발적인 것으로 보기에 너무나 힘든 외삽된 경향의 작품들이다. 만약 백석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평양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삼수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석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삼수 시절 백석의 문학 작품은 내발적인 것과 외삽적인 것의 혼재가 심하게 드러나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석은 궁극적으로 평양으로 올라오지도 못 하고 1962년 이후에는 아무런 공개적인 창작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백석으로 하여금 현지 체험을 요구하였던 작가동맹의 지도부 내부에 1962년 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sup>7)</sup> 작가동맹 위원장이었던 한설야가 지위를 박탈당하고 중앙위원회 내부의 인적 쇄신이 일어났던 것이다. 백석을 평양으로 불러들일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서 그동안 작가동맹 지도부와 백석 사이의 교감마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그에게 청탁을 하면서 작품을 창작할 것을 독려하는 힘이 일시에 사라진 것이다. 백석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간신히 버텼던 최후의 힘을 잃어버린 백석에게 남은 것은 홀로 삼수에서 살면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백석이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작품을 창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의 작품을 공개적인 지면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접수: 2월 25일 / 수정: 3월 25일 / 채택: 4월 1일

---

7) 당시 북의 문학계 내에서 일어난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김재용의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서울: 소명출판사, 2000)을 참고.

## 참고문헌

- 고형진, 『백석 시 바로 읽기』(서울: 현대문학, 2006).  
\_\_\_\_\_, 『정본 백석전집』(과주: 문학동네, 2007).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서울: 소명출판사, 2000).  
\_\_\_\_\_, 『백석전집(증보판)』(서울: 실천문학사, 2003).  
\_\_\_\_\_, 『백석전집(개정증보판)』(서울: 실천문학사, 2011).  
백석, “공동식당,” 『조선문학』, 6호(1959).  
백석, “나루터,” 『아동문학』, 10호(1962).  
백석, “돌아온 사람,” 『조선문학』, 12호(1961).  
이승원, 『원본 백석전집』(서울: 깊은샘, 2006).

## Two Aspects of Baiksuk's Literature in the Period of Samsu

Kim, Jae-Yong(Wonkwang University)

The famous Korean poet Baiksuk moved from Pyongyang to Samsu right after criticism from North-korean Writer's Association in 1959. He made so many poems there after long silence from 1945 to 1958 and wrote so many children's literature which he was eager to engage in Pyongyang. But there is not any writing after 1963 until his death in 1996.

The literature of Baiksuk from 1959 to 1962 in Samsu had two aspects. One is the intrinsic feature of his literature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internal attitude and thinking toward emancipation of people in rural area. The process of collective farm in North Korea was completed in 1958. When he arrived in Samsu, he found established collective farm which is sponsored and ruled by state. But he found another meaning of emancipation and freedom of peasants from collective farm. So many poems and children's literature which he wrote in this time

was based on this internal atmosphere.

The literature of Baisuk from 1959 to 1962 in Samsu had another aspect. This is the extrinsic feature of his literature which is originated from external pressure from party and writer's association. Writer's association asked and pressed him to make the poems which represent and follow the policy of party. In order to move to Pyongyang again, he should compromised with party and writer's association and fulfilled this assignment. So many poems and children's literature in this time which express directly the party's policy was the results of this process of compromise.

The tension between the intrinsic aspect which is originated from internal wish toward emancipation of people and extrinsic aspect which originated from assignment from party dominated the literature of Baisuk in the period of Samsu.

Keywords: Samsu, intrinsic aspect, extrinsic aspect, collective farm, children's literature